일 주 문



추석맞이 자비나눔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스님은 9월 24일 서울 현성정사에서 서대문구 독거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추석맞이 자비의쌀을 전달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혜총 前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이 '제38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9월 26일 수상했다.

조계종 복지재단, 집단 상담교육 실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스님대상 가족 상담교육'을 9월 22~24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스님대상 가족 상담교육'은 신도들의 올바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담기법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사찰에서 신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스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만화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 법회



평창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9월 25일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萬化) 희찬(喜讚) 스님 시봉이야기' 출판 법회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에서 거행했다. 이날 출판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등 한마음선원 스님 및 신도들과 월정사 신도, 함종한 · 김진선 전 강원지사, 소설가 조정래 씨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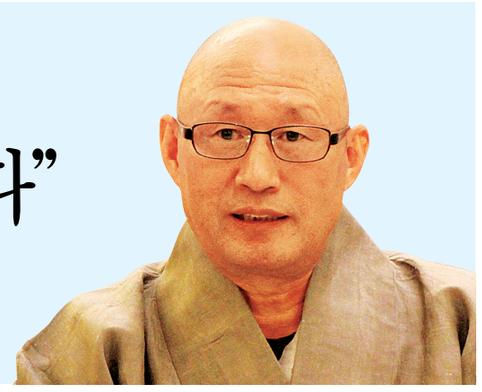
이번 책은 원행 스님이 은사인 만화 희찬 스님의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월정사 대웅전 중창과 적광전 신축 불사를 비롯해, 1980년 10 · 27 법난과 월정사와 대한항공의 인연 등을 시봉하며 기록한 것이다.

원행 스님은 "만화 희찬 대선사의 일생을 짚어보는 일은 근대 한국불교 역사와 오대산 불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되돌아 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양유관음보살처럼, 4대강 치유하겠습니다"

Interview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4대강 황폐화 심각한 수준

지난해 100일 순례 진행 중

'재자연화' 원력 굳건해져

3년간 10만 그루 심기 돌입

'4대강 재자연화'

다소 생소한 이 단어를 묵묵히 실천해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불교환경연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4대강의 재(再)자연화를 위해 강 일대에 왕버드나무를 심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9월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4월 한강을 시작으로 9월 23일 영산강 일대에 2차 버드나무 심기를 완료했다. 30일에는 한강을 다시 찾아 버드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현재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3년간 버드나무 10만 그루 심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4대강 일대에 왜 버드나무를 심겠다고 마음먹었을까. 바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일 스님은 "지난해 '4대강 100일 순례길'을 진행하며 다 망가진 강의 모습을 봤다. 강은 흘러야 하는데 호수처럼 고여 있으니, 썩어버려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다"면서 "치유의 의미로 버들을 한 손에 들고 계신 '양유관세음보살님'처럼 우리도 버드나무를 통해 4대강을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스님에 따르면 버드나무는 수질 정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이들이 심는 왕버드나무는 아름드리나무처럼 커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여주 신륵사에 묘목장을 만들었다. 내성천에서 가져온 버드나무를 이곳에서 길러 4대강 일대로 옮겨 심는 작업이다. 모든 단계가 녹록치 않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묘목을 기르고, 옮겨 심고, 물을 주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은 여주환경연합에서 묘목 관리를 도맡아 해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영산강에 버드나무를 심을 때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동참해 의미가 깊었다. 법일 스님은 "시민들이 '나무 방생'이라고 하며 흥겹게 참여한다. 자신이 강물 정화를 위해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뿌듯해한다"면서 "앞으로는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버드나무 심기 뿐 아니라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

"묘목을 더 많이 기를 겁니다. 이에 더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4대강 순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심각성을 깨닫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강을 보고,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4대강 구간 마다 코스를 나눠, 하루 순례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림(山林)'의 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꿋꿋이 수행해가겠다는 불교환경연대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박아름 기자**

"도반과 함께 즐거운 추억 쌓았어요"

해인동문회, 9월 8~14일

러시아 · 몽골 순례



몽골 간단사에서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는 해인사승가대학 동문 스님들.

해인사승가대학 동문 스님들이 러시아와 몽골 불교를 체험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동명)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러시아 바이칼 · 몽골 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순례는 전 세계 담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바이칼 호수, 몽골 테를지국립공원 탐방 등 명승을 비롯해 몽골 라마불교의 총본산 간단사와 흥인사, 복드한 궁전박물관 등 불교 성지 순례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순례에는 몽골 라마불교 총본산 간단사를 참방하고, 경내 관음당에 조성된 높이 25m의 관음상에 친견했다. 간단사 부주지 따와부릅 스님과 환담을 통해 몽골불교 현황을 듣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명 스님은 "몽골에 계시는 스님들을 뵙고 싶었는데 대중들이 나와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대웅전 부처님을 뵈니까 마음이 숙연해지고 편안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간단사 따와부릅 스님은 해인동문 스님들께 몽골 전통 천, 하다크(Khadag)를 선물로 화답했다.

동명 스님은 "이번 순례는 특히 존경하는 선배 스님들과 함께해 행복하고 소중했다"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 도반 스님과 선후배 스님들께 감사하며, 좋은 생각, 좋은 추억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동문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한 이번 순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며, "각 처소에서 수행, 전법하는 동문 스님들을 보니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이번 순례를 마련해 주신 회장 스님께 감사하다.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 순례를 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동문 스님들과 이 시대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뿌듯하다. 같은 뜻을 모아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야경(夜景) 템플스테이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9월 27일 경내에서 대중음악과 사찰음식 시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경(夜景)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내방한 외국인들과 아이들에게 직접 사찰음식을 나눠주며 축원했다.

조계사는 이와 함께 '스님과 함께 기도문 읽고 사천왕에 소원지 걸기', 다식만들기 및 전통지화 만들기 등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해외불교활동가 한국문화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9월 19~22일 한국불교계가 지원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시설 활동가와 국내지원단체 활동가를 초청해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에는 해외불교활동가 몽골 · 라오스 · 미얀마 · 네팔 등 4개 국가 8명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관음종 · 지구촌공생회 · 더프라미스 · 나마스테코리아 · 로터스월드 등 국내 단체 6곳이 참여했다. 용문사 템플스테이, 종합복지관 견학, 한류문화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호섭 기자**

불국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약



경주 불국사가 청소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9월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서 경주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17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경주 꿈길 진로체험처 협약식'에 참가해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처를 제공키로 협약했다. 행사에는 연수국장 현학스님과 이병학 템플스테이 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종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 총 무 원
부원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교육원장 : 정산
포교원장 : 법진
포교국장 : 호산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영암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수산
감찰2국장 : 금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 장 : 지성
부 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 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 무 : 도은, 정해
교 무 : 본각, 수정
교 육 : 법신, 성담
문 화 : 남산, 진화
포 교 : 보명, 홍산
강 원 : 각원, 현타
복 지 : 화광
감 찰 : 서호, 보현
불 화 : 혜담, 인산
의 식 :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일봉
경기남부종무원장 : 승현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 남 종 무 원 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 북 종 무 원 장 : 덕운
부 산 종 무 원 장 : 서봉 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전 북 종 무 원 장 : 법성
제 주 종 무 원 장 : 청호
울 산 종 무 원 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 집 기 자 : 나윤하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황산
이 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 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주식회사 엠디엠삼성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신도회사업본부
사업부 : 대덕화, 이창훈, 김종덕

■ 전국신도회
고 문 : 설주성
중앙신도회장 : 홍창석
수 석 부 회 장 : 윤근
여 신 도 회 장 :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회
회 장 : 손정일
홍보처장 : 이근진
총무계장 : 유현석
기획대리 : 나윤하
중국담당 : 임가현
기획실장 : 심원일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조영일
학생처장 : 손 정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논현동 2-14 2층)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총 무 원 장 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namkyounguniversity@naver.com